

10월 한달간 '제3회 영산강문화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남도 문화권에는 다양한 누정(樓亭)이 자리한다. 사진은 담양 식영정.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산강, 그곳에는 누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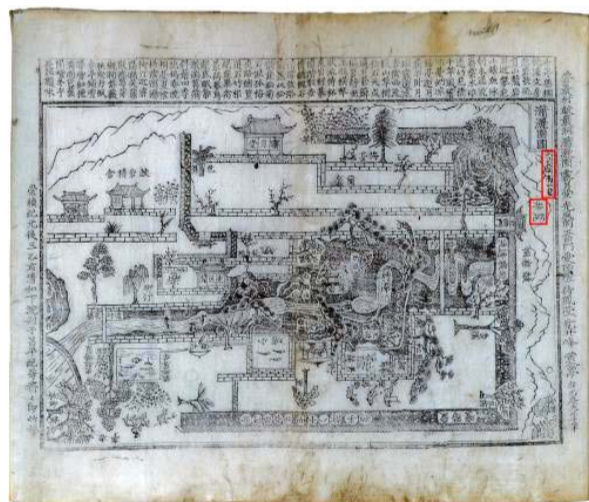
'누정' (樓亭) 주제... 기획전·강좌·체험 등

고려 충신 전신민의 충절이 담긴 담양 독수정, 학문 연구와 토론의 장이었던 무안 식영정, 모범적인 향약 시행처였던 나주 쌍계정, 광주 양과정, 목포 달산각...

올해 영산강문화제 주제는 '누정' (樓亭)이다. 전통시대 동아시아권에서 발달한 누정문화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돼 선조의 얼이 서린 고유의 문화 양태로 정착했다.

문화제는 기획전, 기행, 강좌, 체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누정, 영산강의 정자'를 주제로 열리는 기획전에서는 영산강 상류에 정자를 짓고 학문과 풍류, 문학창작을 즐겼던 기록화 '성산계류탁월도', '소쇄원도', '여지도' 중 '광주목' 등 누정의 역사, 의미와 종류, 구조, 기능 등을 알 수 있는 미술·문학·고지도 등의 이미지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소쇄원도'

이태호 명지대 조빙교수가 함께하는 회화 강좌도 열린다. 이 교수는 '옛 산수그림에 보이는 소묘와 유람, 관조'를 주제로 누정과 산수, 인문학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수형 시인과 함께 떠나는 '영산강의 누정문학 기행'에서는 나주 석관정, 영암 회사정 등 나주와 무안, 영암 일대 누정을 둘러보고, 그에 얽힌 인문학적 배경과 문학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다양한 공연 행사인 '문화제 콘서트'도 행사 기간 중 토요일 열린다. 5일 풍기타 그룹 소리선을 시작으로 들꽃음악단, 무등예술단, 리버힐, 맘마스 하모니, 온아트 테라피, 아코사랑 등이 다양한 공연을 들려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램프의 요정' 지나가 할 수 없는 3가지는?

플라잉가족뮤지컬 '알라딘' 3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가족뮤지컬 '알라딘'이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차례에 걸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극단 코스모스가 주최하는 이날 공연에서는 '아라비안나이트-천일야화' 중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을 선보인다.

모험심 가득한 소년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시험대에 오른다. 탐욕스런 마법사 지파의 계략으로 괴롭힘 당하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나의 도움으로 곤경을 헤쳐나간다.

이날 공연에서는 중동 아라비아 지방을 배경으로 제작된 의상과 음악, 무대 효과로 관객을 만난다.

특히 배우들이 무대를 떠다니는 비행 용단을 타고, 천장에 설치된 줄을 이용해 와이어 액션을 펼치는 등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이날은 뮤지컬 배우 이준우를 비롯해 배소영·김오준·김기철 등 배우가 출연한다. R석 4만원, S석 3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나인작 'NoNoGoldenbough'



'신자연주의 미학'

11월 15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

담양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신 자연주의 26주년' 전이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가나인(본명 전하현)에 의해 선인된 퍼포먼스이자 미학운동인 '신 자연주의'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짚고 한국 미술에 대한 제시하고자 기획된 전시로, 개인의 몸을 중심으로 두고 출발하는 '신자연주의 미학'으로 표현된 50여점의 작품을 조명하는 자리다.

전시에는 신 자연주의 작가 가나인·정복수·서용선이 참가한다. 신자연주의 미학에 공감하고 자신의 작품을 신자연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이들로 공모·선정된 김안선·김상연·박지원·유홍길·임명신·이용환·이지연·정의철·홍준호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재)담양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19 담양 국제 예술 축제'도 오는 12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12월 30일까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자연을 파괴·복구하는 현대인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다. 김치준·이수연 작가를 비롯해 바 브롬(이스라엘), 엘리 블래스코(미국), 아이린 안톤(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10명의 작가가 관람객부터 담빛예술창고까지 친한 자연재료를 이용해 배치한 설치작품과 조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미술상' 공모하세요

운영위, 청년작가 대상 18일까지 신청

사단법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조규일)가 2019년도 광주미술상의 창작활동 지원대상 작가를 공모한다.

올해로 25회째인 '광주미술상'은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도 예술활동에 열의를 다하며 지역미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역량 있는 지역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로·중진 선배미술인들이 199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전남 출신이거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만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작가 또는 단체다. 신청은 18일까지며, 소정양식의 응모원서와 작품활동 포트폴리오, 작품활동 소개 프레젠테이션용 파일 등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23일 열리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3배수 후보작가를 선정하고, 당일 본심에서 선배작가들인 미술상 운영위원들에게 10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광주미술상 1인에게는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특별상 2인에게는 각 150만원씩의 격려금이 지급된다. 접수는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번길 20-1)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It features logos for various international brands like Beltone, CES, and BIG Innovation Awards. Text includes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Seoul and Suncheon.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san Primo Men's and Women's Wigs). It features four portraits of men and text highlighting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and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Contact number is 062 673 5858.